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9. 30.(목) / 총 5매(본문4, 참고1)	
담당 부서	도시재생역량과	담 당 자	·과장 김영혜, 사무관 이선영, 김용우 ·☎ (044) 201-4912, 4938
	도시재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황윤언, 사무관 현혜지 ·☎ (044) 201-4151
	도시재생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공경화, 사무관 박승연 ·☎ (044) 201-4940
	도심재생과	담 당 자	·과장 이성민, 사무관 박원호, 임채현, 홍근훈, 김동현 ·☎ (044) 201-4932, 4929, 4935, 4936
보 도 일 시		2021년 10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3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

- 제28차 도시재생특위 의결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 484만m²)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마중물 사업 기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 3.0천억, 지방비 2.0천억, 부처연계 6.6천억, 지자체 1.5천억, 기금·민간 1.3천억 등

< '21년 제2차 신규사업 선정 결과 >

구분	합계	대구	광주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39	2	1	1	2	3	5	4	4	4	6	2	4	1
일반근린	22	동구			중구	부천 파주 동두천	원주 태백 홍천	증평	서산 당진	영덕 령호 봉화	함양 창녕	익산 무주	보성 진안 영광	제주
주거지지원	10	서구		동구	대덕			괴산	부여 청양	김천	김해 창원		담양	
우리동네살리기	7		동구				인제 고성	청주 음성			의령 고성			

* (일반근린형)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조성 등으로 상권·공동체 활성화 (주거지지원형) 도로정비·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우리동네살리기)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 부천시) '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거점공간(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



<학교 앞 통학로 보차도 분리 조성예시도>

- (강원도 인제군)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45호)하고, 거점 복지공간(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 조성예시도>



<골목길 환경정비 예시도>

- 특히,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이 중 충북 괴산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 (충청북도 괴산군)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5년까지 188억원(국비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20호)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청천허브센터)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청천 허브센터 및 임대주택 조성 예시도>



<골목길 정비 예시도>

-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곳의 도시재생계획에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있다.” 며,
 - * 광역 시·도가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선정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국비지원이 타당한 사업 선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이선영 사무관(☎044-201-49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1년 도시재생뉴딜 2차(사·도) 선정지역 위치도

범례

- 일반근린형(22개)
- ★ 주거지원형(10개)
- ▲ 우리동네살리기형(07개)

